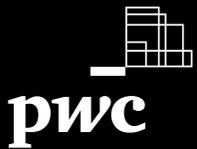


24th Annual Global CEO Survey

# A leadership agenda to take on tomorrow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 Contents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 전망	03
매출 신장에 대한 자신감 회복	04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 존재, 불안의 지속	05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소폭 증가,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	06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사이버 위협 리스크 급증	08
디지털 투자 10% 이상 늘릴 것	09
인력과 생산성	10
떠오르는 증세론	11
미국, 기업의 성장 전략에서 핵심국가 1위	12

##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과 혼돈 속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놀라운 속도로 개발된 백신으로 인해 실물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코로나는 글로벌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과 기업 운영 모델의 약점을 노출시켰다. 또한 리더들이 이같은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와 창의성이 발휘되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그 강도 역시 증폭되었다는 점은 이번 24차 연례 최고경영자(CEO)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CEO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낙관적이었다. 코로나가 촉발시킨 디지털 전환은 생산성과 기업 운영상의 이점으로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과 가짜 정보의 확산이라는 단점도 공존한다. CEO들은 자사의 수익 전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여전히 팬데믹의 행보, 조세 및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 기후 변화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숫자는 그 숫자 이면을 넘어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PwC는 지난 2021년 1월과 2월, 전 세계 5,050명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숫자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보았다. 이번 설문에 대한 응답은 기업의 운영 모델과 신뢰성, 투명성 측면에 관한 통찰을 담고 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활동은 정부 주도의 탈탄소화에 주력했었다. 그러나 투자자, 정책입안자를 비롯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사회가 마주한 대규모의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변화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다수의 기업에서 CIO의 영역으로 간주했던 사이버 보안은, 문제를 공동으로 책임질 실질적인 관리주체에

대한 프레임이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의 복잡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바탕에는 근본적 명제가 포함되어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경영자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으며, 동시에 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자신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PwC의 24차 연례 글로벌 최고경영자 설문조사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 운영자의 향후 전망과 우선순위 등을 살펴보았다.



##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 전망

글로벌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설문에 참여한 CEO의 76%가 올 한해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것이라 답했다. 이는 동 설문이 시작된 2012년 이래 가장 높은 긍정적인 답변률으로, 지난해 조사에서 단 22%만이 성장에 긍정적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반등한 수치이다(그래프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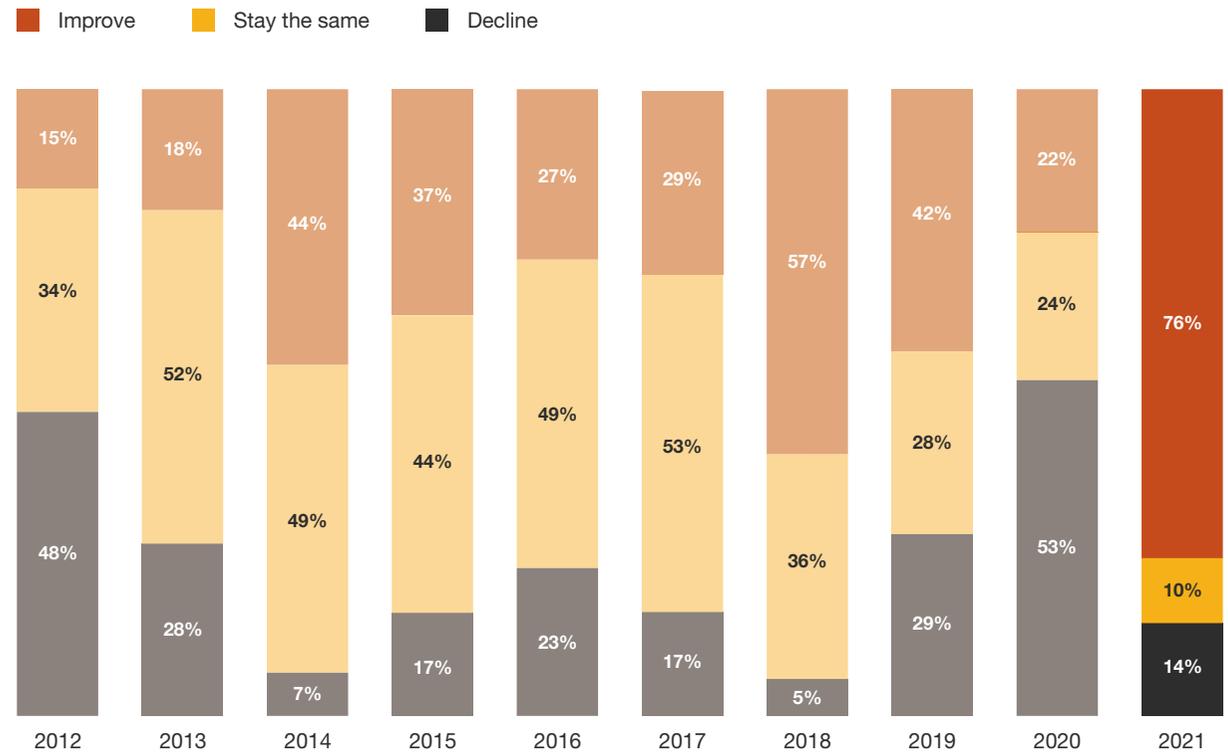
코로나의 확산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여파로 전 세계 GDP가 대공황 이래 최악인 3.5%대의 감소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한 영역이었다. 지난 해 하락의 여파로 올 한해 반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이 같은 반등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래프 1

### 2021년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CEO의 자신감, 역대 최고 수준

질문

귀하는 향후 12개월 동안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현상유지 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Source: PwC 24th Annual Global CEO Survey

Note: From 2012 to 2014, respondents were asked, 'Do you believe the global economy will improve, stay the same or decline over the next 12 months?'

## 매출 신장에 대한 자신감 회복

백신의 보급이 확산되고, 바닥을 쳤던 수요가 급반등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환경에 대한 CEO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자사 비즈니스 전망에도 이어졌다. 향후 1년간 자사의 매출 성장에 대해 '매우 확신한다'고 응답한 CEO의 비율은 지난해 27%에서 36%로 증가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3년간의 매출 성장에 동일한 답변을 보인 CEO 역시 47%에 달했다(그래프 2 참조).

PwC는 2008년부터 CEO의 한 해 전망을 분석하고, 세계 GDP 성장률의 향방과 연관성을 예측했다. 올해의 답변에 근거했을 때 글로벌 경제는 5.0%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IMF가 제시한 5.5% 성장률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 팬데믹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는 2021년 4분기 또는 2022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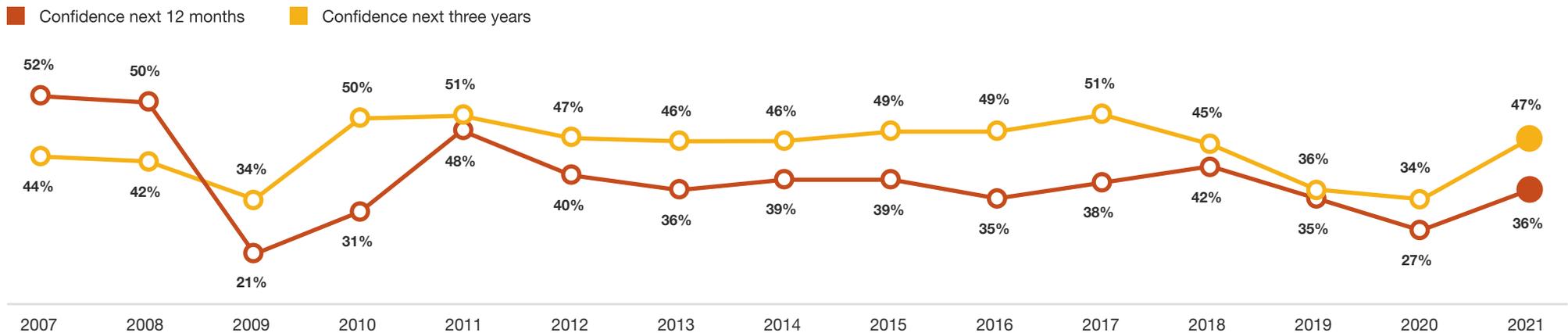
한편 비즈니스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소비자 행동의 변화로 인해 산업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기술과 통신 부문에서는 각각 45%, 43%의 CEO들이 성장에 자신감을 보인 반면, 교통·물류는 29%, 요식·숙박업·레저는 27%만이 긍정 전망을 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이었다.

그래프 2

### CEO의 자신감 반등

질문

귀하는 향후 12개월 및 3년 동안 귀하의 회사/조직의 기업수익성 및 매출 성장의 전망에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Source: PwC 24th Annual Global CEO Survey

##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 존재, 불안의 지속

이 같은 장미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CEO들은 외부 환경의 위협 요소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올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등 건강 위기를 기업 운영의 위험 요소라고 꼽았다. 6년 전, 이를 위협으로 느낀 응답자의 비율은 9%에 불과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불안과 낙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CEO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회복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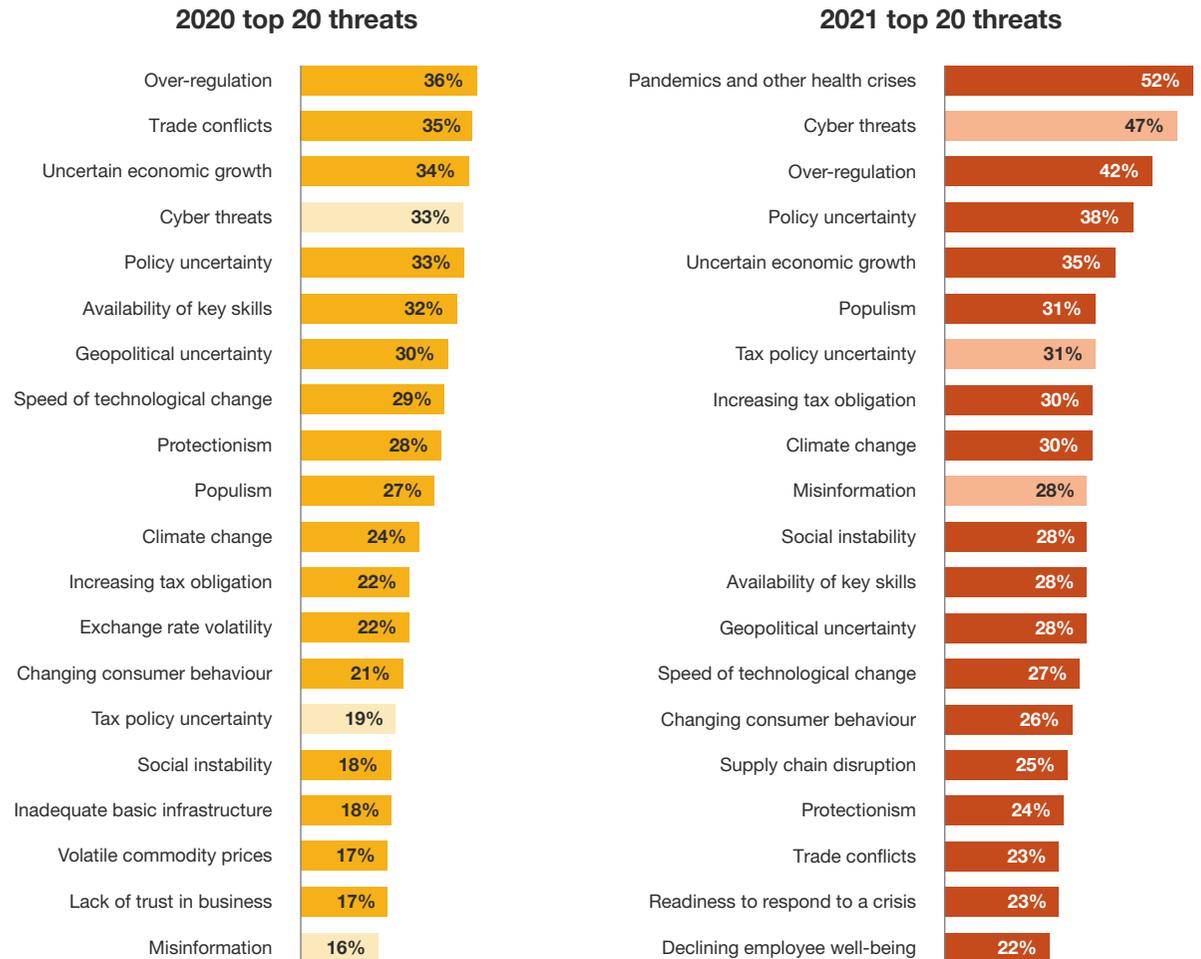
Source: PwC 24th Annual Global CEO Survey  
 Note: 'Pandemics and other health crises' was last included as a threat in the 18th Annual Global CEO Survey

그래프 3

## 사이버 위협, 가짜 정보, 조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높아

질문

귀하 조직/회사의 성장 전망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비즈니스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요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하십니까?





##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소폭 증가,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

기후 변화 이슈가 경영활동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CEO는 지난해 24%에서 30%로 소폭 증가에 그쳐 조직의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9위에 머물렀다. 기후 변화를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또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27%를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 과잉 규제, 사이버 위협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기후 변화는 즉각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설문 조사에 응한 CEO의 39%는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심도있게 측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43%는 재무정보, 비재무지표 등 기존의 정보 제공 요소와 함께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정보가 체계적으로 쌓인다면 넷제로 경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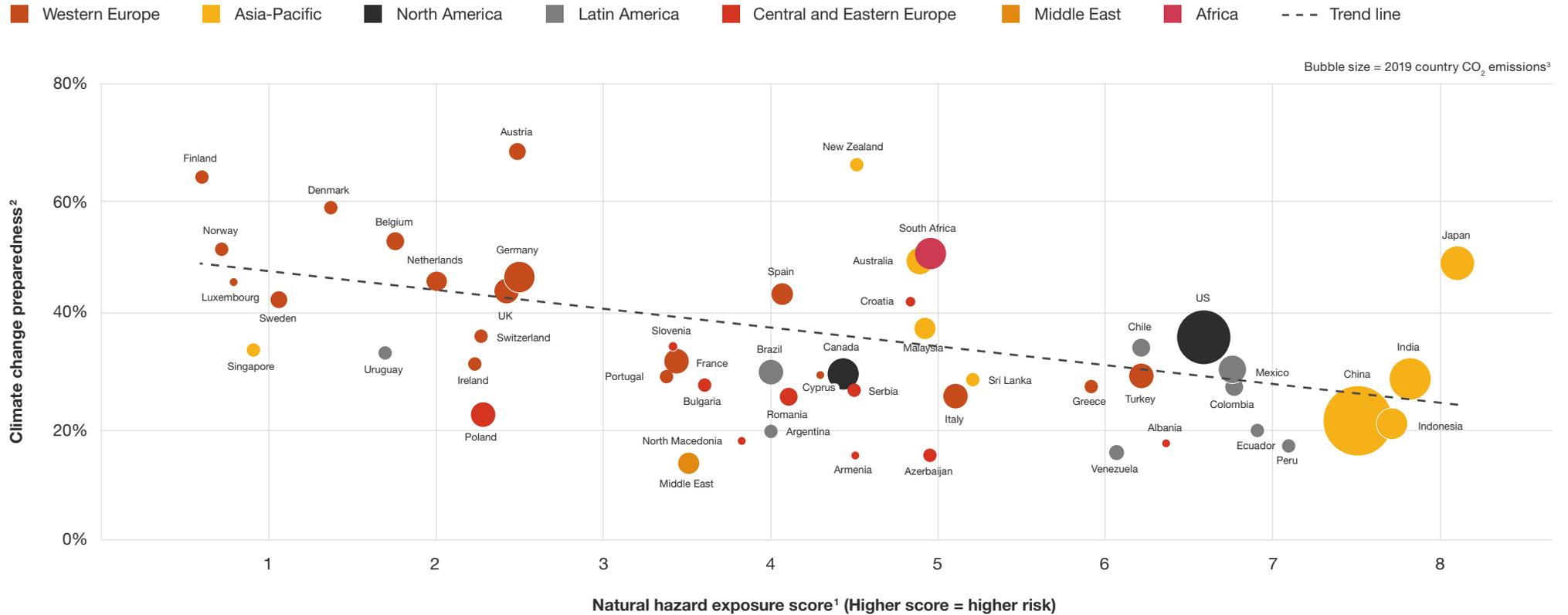
그러나 CEO의 60%는 기업의 전략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에 기후 위험(Climate Crisis)을 반영하지 않아, 향후 물리적, 전환적 리스크 증가가 우려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중국, 인도와 같은 자연 재해의 확률이 높고, 기후 변화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의 CEO들이 특히 기후 변화의 리스크에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4 참조).

그래프 4

# 자연 재해 확률이 높은 국가들, 기후 변화 리스크에 준비 미흡

## 질문

귀하 조직/회사의 전략적인 리스크 관리 활동에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Source: PwC 24th Annual Global CEO Survey; EC DRMKC 2021 INFORM Risk Index; Our World in Data

1) Natural hazard exposure score reflects the country's probability of physical exposure associated with specific hazards including earthquake, tsunami, flood, tropical cyclone, drought and pandemic

2) Share of CEOs that have factored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damage into their organisation's strategic risk management activities

3) 2019 country CO<sub>2</sub> emissions are measured in million tonnes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사이버 위협 리스크 급증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더디게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CEO는 지난해 33%에서 47%로 크게 늘어났다.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의 리스크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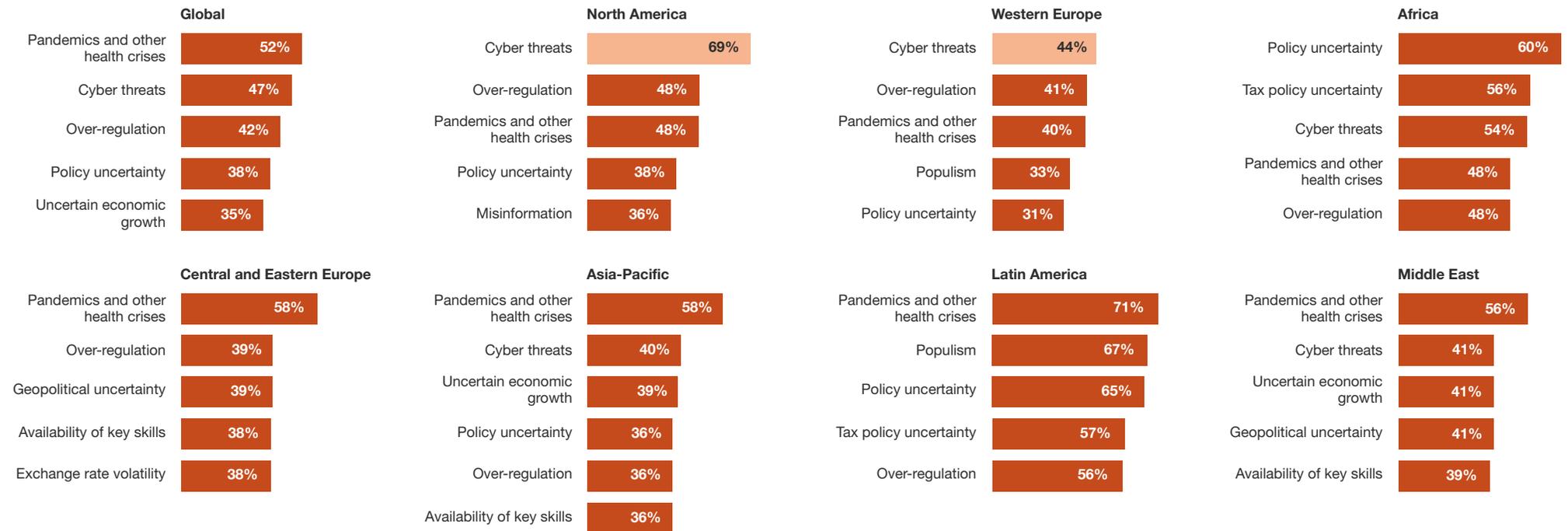
2020년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보안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과 맞물려 CEO들이 꼽은 성장 위협 요소 2위로 떠올랐다.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서는 사이버 위협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보다 더 큰 위협으로 간주됐다(그래프 5 참조).

그래프 5

## 북미, 서유럽 CEO들, 성장의 위협 요소로 사이버 위협을 1위로 꼽아

질문

귀하 조직/회사의 성장 전망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비지니스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요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려하십니까?



Source: PwC 24th Annual Global CEO Survey

## 디지털 투자 10% 이상 늘릴 것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CEO들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지출을 늘리겠다고 답한 CEO는 절반 미만에 불과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CEO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점점 더 많은 CEO(36%)들이 자동화와 기술 교육을 통해 직원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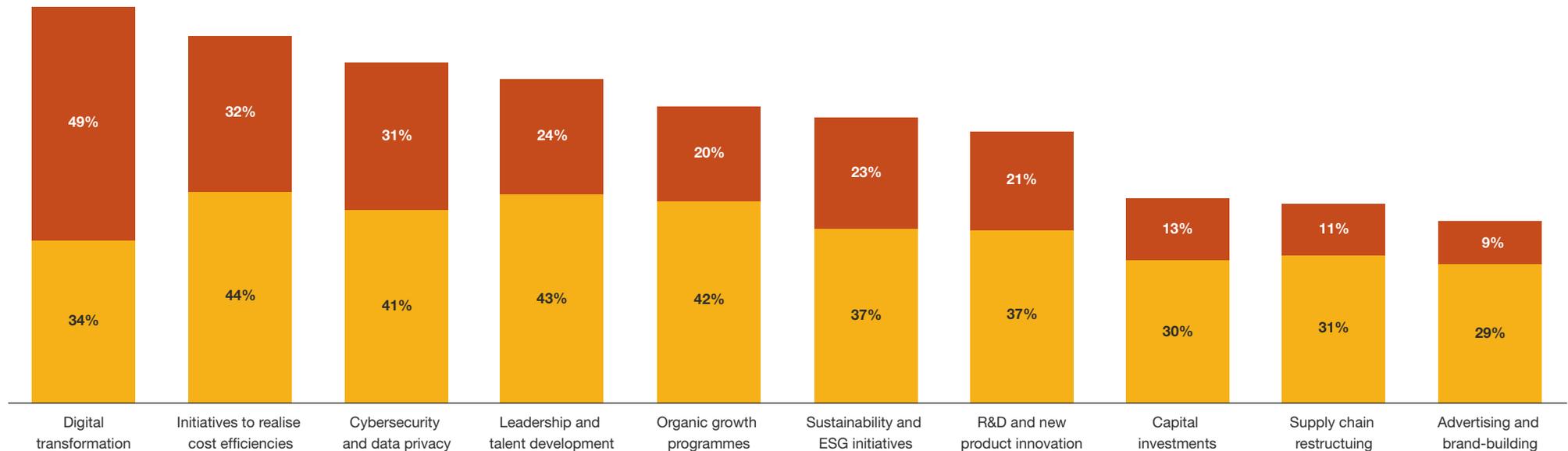
그래프 6

### 절반에 가까운 CEO가 디지털 투자를 전년대비 10% 이상 늘리겠다고 답해

#### 질문

귀하의 조직/회사는 코로나19 위기의 결과로 향후 3년 동안 다음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어떻게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Increase moderately (3–9%)
 ■ Increase significantly (≥10%)



Source: PwC 24th Annual Global CEO Survey

## 인력과 생산성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묻는 질문에 다수의 CEO들이 숙련되고, 역량을 갖춘 인력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3명 중 1명의(36%) CEO들은 디지털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라고 답했다. 점점 더 많은 CEO들이 기술 발전과 자동화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는데, 이는 2016년에 비해 두배가 넘는 비율이다.

그러나 코로나가 경제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상당 수준의 부채를 떠안아야 했다. 이로 인해 조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비즈니스 성장을 위협하는 중대 요인으로, 지난해 15위에서 7위로 급등했다.

### ☞ 비대칭 문제 해결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나, 이로 인해 일부 인력간의 기술 및 역량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한 CEO는 20%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과 기업, 국가간의 비대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사회적, 경제적 대안으로 숙련도 향상, 재교육이 제시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시의적절한 대비책을 통해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로 성장해 가야한다.





## 떠오르는 증세론

생산성 향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회복에 있어 주요한 원동력이다.

코로나가 경제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 상당 수준의 부채를 떠안았다. 재정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연장선 차원에서 증세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조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비즈니스 성장을 위협하는 중대 요인으로, 지난해 15위에서 7위로 급등했다.

한편 국가 간 경쟁으로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세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이익을 본 플랫폼 기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세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과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세 정책에 대한 논의는, 특히 불황기에 더욱 대립하는 경향을 보인다.

조세 정책은 국가 차원의 투자의 향방, 기업의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글로벌한 이슈이다. 따라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기반되어야 한다.

## 미국, 기업의 성장 전략에서 핵심국가 1위

기업 성장에 있어 핵심 전략국가를 선정하는 조사에서 미국은 35%의 선호도를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2위를 차지한 중국은 28%로, 미국과의 격차가 지난해 1%포인트에서 7%로 크게 늘어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CEO들은 새로운 정치권력의 등장과 현존하는 무역 긴장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CEO들의 선호도는 크게 낮아진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높아졌다. 한편 중국의 CEO들은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 수출국들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7 참조).

또한 미국과 중국에 이어 독일이 17%의 선호도로 지난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영국이 11%, 인도가 8%의 선호를 받았으며, 지난해 6위였던 호주를 제치고 일본이 6위를 차지했다.

그래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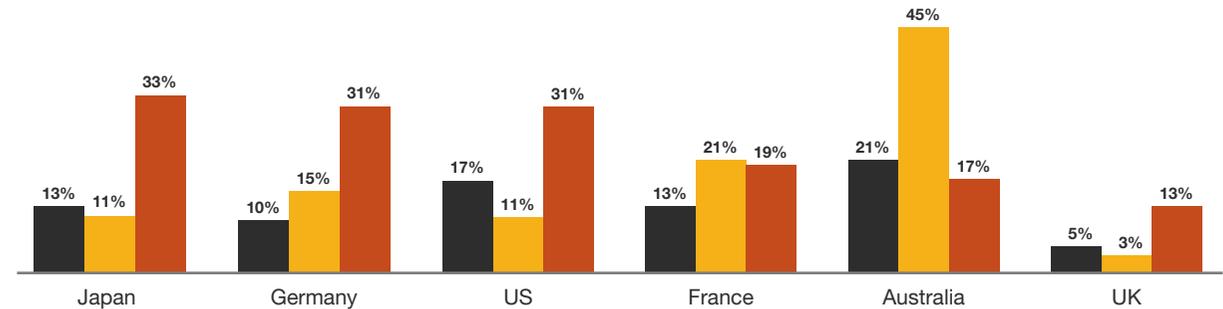
## 중국 CEO는 수출국, 미국 CEO는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선호도 높아져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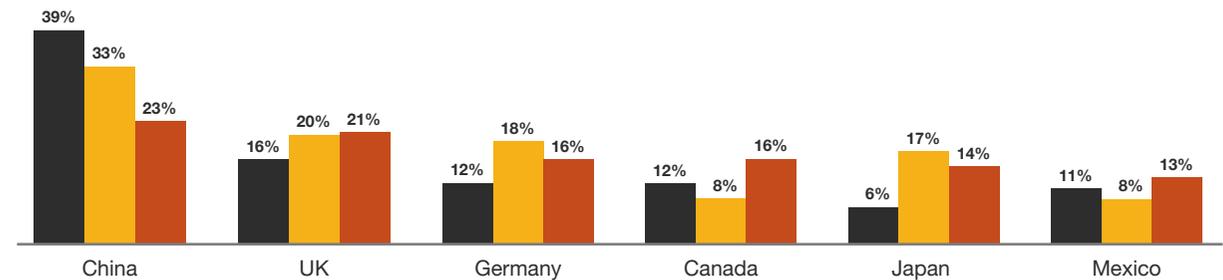
귀하 조직/회사의 전반적인 성장 전망에서 향후 12개월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는 세 곳의 국가/지역은 어디입니까?

■ 2019 ■ 2020 ■ 2021

### China CEOs



### US CEOs



Source: PwC 24th Annual Global CEO Survey

Note: Showing only top six countries by 2021 rank for China and US CEOs

# 24th CEO Survey methodology

PwC는 2021년 1월과 2월에 걸쳐 100여 개 국가/지역의 5,050명의 CEO를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글로벌 및 국가 수치는 개별 CEO의 견해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국가별 명목 GDP에 비례하여 1,779명의 CEO 하위 표본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역과 국가, 산업별 데이터는 5,050명 응답자 전체 표본을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 및 국가, 산업별 자세한 분석 데이터는 요청시 제공됩니다. 설문조사의 93%는 온라인으로, 7%는 우편과 전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정량 조사는 익명을 전제로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및 지역 수치에 대한 응답으로 분류된 1,779명의 CEO 가운데, 지난 회계연도 매출액이

- 미화 1억 달러 이하인 기업은 14%,
- 미화 1.01억~10억 달러 미만인 기업은 34%,
- 미화 10억~100억 달러 미만인 기업은 35%,
- 미화 100억~250억 달러 미만인 기업은 9%,
- 250억 달러의 이상인 기업은 6%입니다.

응답자의 60%는 민간 소유 기업의 CEO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pwc.com/ceosurvey](https://www.pwc.com/ceosurvey)에서  
심층 인터뷰는 [strategy-business.com/  
mindoftheceo](https://www.strategy-business.com/mindofthece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4th Annual Global CEO Survey

[www.pwiconsulting.co.kr](http://www.pwiconsulting.co.kr)

S/N: 2105P-RP-008

© 2021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All rights reserved.